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

KBS사보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Vol. 745



스포츠 중계방송의 명가 KBS가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의 생생한 감동과 가슴 뛰는 승전보를 전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는 구자철, 조원희, 한준희 해설위원 그리고 이광용, 남현종 캐스터가 호흡을 맞춘다.

FIFA WORLD CUP Qatar2022 KBS OFFICIAL BROADCASTER

중계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구자철 해설위원이다. 카타르 월드컵을 중계방송하는 지상파 3사 해설위원 중 유일한 현역 선수이기 때문.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던 경력과 카타르 월드컵 출전 멤버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현역 선수인 구자철 위원만의 가장 큰 자산인데, 카타르 리그에서 선수로 뛰었던 경험까지 더해질 예정이어서 어떤 중계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차별화된 해설을 기대케 한다.

도쿄올림픽 축구 중계에 이어 다시 한번 KBS와 인연을 맺은 조원희 해설위원은 '성장형 해설위원'이라는 애칭답게 냉철하면서도 활력 넘치는 해설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다 샤우팅 해설로 유명한 '걸어 다니는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위원의 노련하고 유쾌한 분석도 또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예정. 이들 세 명의 해설위원과 호흡을 맞출 캐스터로는 배테랑 이광용, 젊은 피 남현종 아나운서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한편 KBS는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과의 컬래버레이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일일 조회 수 평균 100만 회로 축구 채널 중 압도적 1위인 '이스타TV'와 조원희 해설위원의 채널 '이거해조 원희형', 젊은 축구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수날' 등과 함께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최고의 월드컵 중계를 약속합니다"

KBS의 카타르 월드컵 중계진을 소개하는 행사가 10월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중계진이 밝힌 포부를 정리했다.

한준희(해설위원)

"축구 방송의 근본적인 메카니즘상 축구 중계는 (타 방송사가 하는) 3인 해설이 적합하지 않다, KBS만의 2인 해설 체제는 축구 해설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 KBS가 그만큼 축구 중계의 원리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번 카타르 월드컵 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조원희(해설위원)

"지난 도쿄 올림픽 이후에 많은 자신감과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해설을 하겠다."

구자철(해설위원)

"이번 월드컵의 (해설위원 중) 유일한 현역이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을 경험했는데, 세 번째 월드컵은 축구화가 아닌 구두를 신고 참여하게 됐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민들과 선수들의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광용 아나운서(캐스터)

"새로운 해설 대세가 될 구자철 해설위원과 호흡을 맞추게 되어 기대가 크다. 월드컵의 주인공은 선수들이고, 주인은 축구팬과 시청자들이다. 그 사이에 해설자와 캐스터가 있는데, 전달자의 주요 역할은 구자철 위원이 할거고 저는 묵묵히 옆에서 도와드리겠다. 구자철이 해설자로 빛날수록 저도 빛이 날 수 있다."

남현종 아나운서(캐스터)

"'축구 백과사전' 한준희 해설위원이 있고 친근한 조원희 해설위원도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저는 검색 엔진이다.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해야 하지 않나. 궁금한 걸 물어봐 주는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 잘 검색하고 잘 물어보는 동생 역할을 하겠다."



KBS, 8분기 연속 〈미디어 신뢰도 조사〉 전 부문 1위

KBS가 2022년 3분기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방송사 뉴스·언론매체,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KBS는 〈미디어 신뢰도 조사〉 전 부문에서 8분기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KBS가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 항목에서 22.0%를 기록해 2018년 4분기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MBC가 19.9%로 2위를, JTBC가 12.7%로 3위를 차지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조사 부문에서 KBS는 19.1%로 1위를 차지했고 MBC가 14.2%로 2위를 그리고 TV조선이 6.9%로 3위를 기록했다.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KBS라고 답한 사람들이 2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MBC가 20.0%, JTBC가 10.7%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KBS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KBS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2분기 63.7%보다 1.8% 포인트가 상승한 65.5%를 기록했고 수신료에 대한 지불 가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유무선 RDD 전화 면접조사(응답률 9.4% / 유선 15%, 무선 85%)로 진행됐으며(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기관인 '칸타코리아'가 맡았다. 〈미디어 신뢰도 조사〉의 전체 조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원생활의 로망, 자급자족 라이프

세컨 하우스





〈세컨 하우스〉는 스타들의 전원생활 도전기를 통해 힐링과 재미를 선사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달달한 부부애를 과시하는 결혼 29년 차 최수종, 하희라 부부와 '절친 케미'의 배우 주상욱, 조재윤이 출연해 시골의 빈집을 수개월 동안 직접 고치고 꾸미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펜션이나 실제 거주하는 집을 빌려서 촬영하는 것과 달리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직접 리모델링하는 것이 〈세컨 하우스〉만의 차별화된 특색이다.

〈세컨 하우스〉는 전원생활의 로망으로 가득 채워진 힐링 하우스에서의 쉼을 통해 시청자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단 하루만이라도 훌쩍 떠나서 쉬고 싶은 현대인에게 위로를 건네며 지친 일상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을 담당한 박덕선 CP는 "시골에 빈집이 하나 생기면 언젠가는 그 옆집도 비게 되고 결국 마을 전체가 사라지게 된다. 바로 이 시골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 활용해서 나의 진정한 휴식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사라져가는 시골 마을 공동체까지 부활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는 말로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 첫 방송 11월 3일 /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KBS2

탄탄한 스토리와 따뜻한 감성의 향연

드라마 스페셜 2022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단막극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KBS가 올해도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채워진 〈드라마 스페셜 2022〉를 11월 16일부터 방송한다.

〈드라마 스페셜 2022〉는 공포 스릴러부터 10대 청춘극, 로맨스,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단막극 8편과 영화 2편으로 구성됐다.

첫 방송되는 단막극 '얼룩'은 남의 집에서 몰래 피아노 연습을 하던 음대생이 예기치 못한 손님과 맞닥뜨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배우 차학연, 변서윤, 이시우는 희망과 절망 사이의 얼룩진 욕망을 그려내며 손에 땀을 쥐는 스릴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단막극 '방종'은 초능력을 손에 넣은 라이더 청년이 인터넷에서 악인들을 응징하며 다크 히어로로 거듭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배우 김기해, 손상경, 박정표, 김상우는 개성 넘치는 열연으로 다크 히어로와 온라인 범죄라는 신선한 소재를 개성 넘치는 열연으로 풀어낼 전망이다.

'프리즘'은 예고 발레 전공 학생들의 아름답게 흔들리는 꿈과 우정, 그리고 사랑을 담은 성장기이다. 배우 김민철과 홍서희가 10대들의 불안하면서도 아름다운 서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아홉 해달들'은 자퇴서를 품고 다니던 열아홉 청춘들의 위태롭고 애틋한 첫사랑 이야기. 배우 신은수와 김재원이 역대급 성장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작품이다.

'낯선 계절에 만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병동 로맨스로 배우 한지은과 김건우가 현실 반영 연기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팬티의 계절'은 배우 강승윤, 최재섭, 강성훈, 우민규의 다채로운 캐릭터 열전을 확인하는 재미를, '아쉬탕가를 아시나요'는 로맨틱 코미디로 주종혁과 배윤경의 케미를 기대케 한다.

'양들의 침묵'은 안전한 침묵과 정의로운 고발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선 대위 최형원의 이야기로 배우 김새벽과 전혜원이 출연해 부당한 사건으로 인해 펼쳐지는 갈등과 반전을 그린다.

〈드라마 스페셜 2022〉의 대미를 장식할 TV 시네마 첫 번째 작품 '귀못'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저수지 귀못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호러물로 박하나, 허진, 정영주가 열연을 펼친 작품이다.

TV 시네마 두 번째 작품 '유포자들'은 범죄 스릴러로 배우 박성훈, 김소은, 송진우가 탄탄한 연기를 통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할 전망이다.

'귀못'과 '유포자들'는 각각 10월 19일과 11월 23일 전국 CGV에서도 개봉하고, 웨이브에서는 12월 7일과 8일 선 공개될 예정이다.

11.16(수) 얼룩	연출 이민수 극본 여명재 _ **차학연, 변서윤**
11.17(목) 방종	연출 최정은 극본 위재화 _ **김기해, 손상경, 박정표**
11.30(수) 프리즘	연출 이대경 극본 위재화 _ **김민철, 홍서희**
12.1(목) 열아홉 해달들	연출 김수진 극본 고우진 _ **신은수, 김재원**
12.7(수) 낯선 계절에 만나	연출 이민수 극본 여명재 _ **한지은, 김건우**
12.8(목) 팬티의 계절	연출 최정은 극본 이지우 _ **강승윤, 최재섭**
12.14(수) 아쉬탕가를 아시나요	연출 이대경 극본 염제이 _ **주종혁, 배윤경**
12.15(목) 양들의 침묵	연출 김수진 극본 강한 _ **김새벽, 전혜원**
TV 시네마 12.21(수) 귀못	연출 탁세웅 극본 탁세웅 _ **박하나, 허진, 정영주**
TV 시네마 12.22(목) 유포자들	연출 홍석구 극본 정우철 _ **박성훈, 김소은, 송진우**

▶ 첫 방송 11월 16일 / 매주 수~목요일 밤 9시 50분 KBS2



방송 그 이후

"'깜빡 4인방' 어르신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2018년 시즌1에 이어 올해 6~7월에 시즌2가 방송된 〈주문을 잊은 음식점〉은 경증 치매인이 음식점 운영에 나서는 도전기를 유쾌하게 그려내며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한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 수상에 이어 유럽방송연맹(EBU)이 후원하는 '골든로즈상' 본선 진출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 A+E와 유통 계약 등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주문을 잊은 음식점〉을 연출한 이유심 PD가 시즌2 방송 이후 소식을 전해왔다.


이유심 PD
시사교양2국

올해 여름 KBS 1TV에서 방송된 〈주문을 잊은 음식점 2〉의 해외 방송 버전을 제작하며 6부를 처음부터 찬찬히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손님이 안 올까봐 걱정이었던 영업 첫날. 반대로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었던 영업 마지막 날. 폭우가 쏟아져 온종일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날. 분명 올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해진 〈주문을 잊은 음식점 2〉.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어르신들, 치매 노인들이었다.

'우리는 KBS 방송국에서 왔고, 앞으로 치매 어르신들과 음식점을 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직접 손님을 맞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줄 것이다'라고 촬영 전 수십 번 설명했지만 정작 음식점이 열리자 그들은 하나 같이 '우리도 놀러 온 사람'이라고 손님에게 말했다. 어느 출연자는 제주도에 촬영하러 왔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리셨는지 '한라산에 등산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왜 그랬을까. 혹시 내 설명을 그만 깜빡하신 걸까. 혹은 난생 처음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 앞에서 서빙하는 모습이 창피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일이었을까.

가끔 우리의 깜빡 4인방(장한수, 최덕철, 백옥자, 김승만)은 방송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60세 막내 김승만 님은 딸이 SNS에 아빠와의 소소한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고, 나머지 어르신 세 분은 방송 전에는 가기 두려워 했던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시는 등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셨다고 한다. 백옥자 님은 그 곳에서 반장을 맡아 하실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지인들과 함께 모여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를 보고 또 본다는 장한수 님과 치매에 걸렸음을 애써 부정했던 최덕철 님은 지금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조금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셨다고 한다.

스스로를 '놀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깜빡 4인방이, 인터뷰 때마다 '종종 깜빡거리긴 하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고 했던 어르신들이 방송 이후 '치매'를 담담하게 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

TV는 가장 '핫'한 사람과 사건을 쫓아가곤 하는데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는 그 반대였다. 전성기가 지나버린 사람들. 더 이상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들. (사람에게 '쓸모'라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그 쓸모를 다 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삶을 제작진은 카메라에 담고자 했다. 이 측면에서 〈주문을 잊은 음식점 2〉는 기존에 해왔던 작업과는 다소 달랐다. 전성기를 지나버린 이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치매 어르신들이 가족에 대해, 지나온 삶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인생에 대해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면 나 역시도 그들로 인해 삶과 사람과 일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을 잊은 음식점 2〉가 내게 주었던 기쁨과 슬픔은 차차 희미해져 가겠지만 인생 최전성기에 만난 이들의 반짝임과는 다소 결이 달랐던, 전성기가 한참 지난 깜빡 4인방이 촬영 틈틈이 내게 보여주었던 반짝거림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당신의 밤과 음악〉 40주년 기념 특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편안한 음악과 이야기로 애청자들의 하루를 마감해온 KBS 클래식FM의 간판 심야프로그램 〈당신의 밤과 음악〉(수도권 93.1㎒)이 11월 8일 방송 40주년을 맞아 기념 음반을 발매하고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방송 40주년 기념 음반 발매

〈당신의 밤과 음악〉은 지난 10월 18일 유니버설뮤직과 컬래버레이션해 40주년 기념 음반을 발매했다. 음반 타이틀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는 2018년부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상협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다. 이처럼 청취자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타이틀 아래 밤을 주제로 한 세 가지 테마(밤으로의 초대, 밤의 무도회, 별 한 점 없는 밤에)의 음악 32곡을 CD 3장에 담았다.



애청자와 소통하는 기념 음반 공개 청음회


공개 청음회

10월 19일에는 기념 음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를 애청자와 함께 감상하는 공개 청음회를 개최했다. 공개 청음회는 클래식FM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형식으로, 극장식 대형 스피커 등 오디오 시스템이 갖추어진 음악감상실에서 음반을 감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애청자를 초대해 해설과 함께 40주년 기념 음반을 감상하는 한편, CD와 LP 등 오디오 매체에 따른 감상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역대 DJ의 홈커밍 스페셜 방송 등 40주년 기념 특집방송

11월 7일부터는 방송 40주년 기념 특집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현 DJ인 아나운서 이상협을 시작으로, 11월 8일에는 1993년부터 20여 년간 클래식FM 밤 10시의 상징과도 같았던 목소리의 소유자 이미선 아나운서의 홈커밍 스페셜 방송이 진행된다. 11월 9일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당신의 밤과 음악〉을 진행했던 성우 김세원의 방송이 이어진다. 3일간의 홈커밍 스페셜 방송에 이어 11월 10일, 11일에는 앞서 개최된 기념 음반 공개 청음회가 녹음 방송된다. 공개 청음회는 KBS 클래식FM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 11월 7일~11일 밤 10시 KBS Classic FM

정덕현의 TV 읽기

시청률보다 중요한 착한 가족극의 가치…〈삼남매가 용감하게〉


정덕현
문화평론가

다채널의 시대다. 그래서 지상파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0%를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 속에서도 KBS 주말드라마는 거의 유일하게 20% 이상 때론 30%를 넘기는 시청률이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자리해왔다. 열심히 한 주를 보내고 주말에 편안하게 KBS 주말드라마를 보는 건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 주를 마감하는 하나의 리추얼(Ritual)로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모두가 공감하듯이 가족 드라마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가족주의 시대는 이미 저문 지 오래다. 1인 가구 비율이 31%에 달하고, 가족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생겼다. 이러니 KBS 주말드라마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아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가족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들은 고민에 빠진다. 물론 KBS 주말드라마는 현실보다는 가족 판타지를 보려는 시청자들이 고정층이라 과거의 가족 드라마 틀을 가져왔을 때 시청률이 담보되지만, 그래도 작가들은 현재의 달라진 관점을 담은 욕망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 시작한 KBS 〈삼남매가 용감하게〉는 그런 점에서 '용감하게' 달라진 가족관의 변화를 담으려는 가족 드라마다. 이 가족 드라마의 중심축은 이른바 K장녀, K장남으로 불리는 김태주(이하나 분)와 이상준(임주환 분)의 러브라인이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남녀다. 젊어서 사랑했지만 두 사람은 가족을 챙겨야 하는 각자의 현실 때문에 결별했다. 톱스타가 된 이상준은 인기를 위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고, 그렇게 헤어지게 된 김태주는 톱스타의 전 여자친구라는 굴레 속에서 청춘의 한 부분을 저당 잡힌 채 장녀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야 했다. 그런 그들이 나이 들어 다시 만나게 되고 여전히 K장녀, K장남의 굴레를 당연히 생각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제 자신들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삼남매가 용감하게〉의 중심 스토리다. 결국 이 드라마는 한때 장녀,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았던 그 가족주의 시대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개인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개인주의 시대의 새로운 선택을 그려가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시대의 달라진 가치관이 투영된 가족 드라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 드라마의 힘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우선이라는 다소 보수적인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 흔한 '출생의 비밀' 코드가 가족 드라마에서 힘을 발휘해 왔던 건, '핏줄은 당긴다'는 가족주의적 관점이 가장 극적으로 담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핏줄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족 드라마로 담게 되면 이러한 보수적인 파괴력은 잘 생겨나지 않는다. 대신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코드는 그래서 '멜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의 반대에도 각자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결실을 맺는 서사는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바뀐 시대에도 여전히 먹히는 코드다.

김태주와 이상준은 결국 장남, 장녀로 대변되는 가족의 멍에를 벗고 사랑에 골인할 수 있을까. 동생들인 김소림(김소은 분)과 김건우(이유진 분) 역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수 있을까. 〈삼남매가 용감하게〉는 이렇게 멜로 코드를 활용해 개인주의 시대에 달라진 가족관을 담으려 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가족극에 비해 극적 요소들이 적어 시청률은 다소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과거 가치관을 가져와 자극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현재를 담으려는 착한 가족극의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라면 더더욱 추구해야 할.



알기 쉬운 미디어 이슈

Rabbit Jump와 미디어 대응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매년 10월이 되면 기다려지는 책이 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3'이다. 서울대소비트렌트분석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1년간의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 다음 해 띠의 동물명을 활용해 10개 트렌드를 발표한다. 국내 경제는 2023년 3~4분기에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내년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불황과 어려움을 딛고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책의 부제를 'Rabbit Jump'라고 붙였다.

2023년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방송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다.

첫째, 평균실종(Redistribution of the Average)이다. 시장이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승자독식' 세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평균이 의미가 사라진다.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평균이 실종되는 상황의 역기능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오피스 빅뱅(Arrival of a New Office Culture: 'Office Big Bang')이다. 직장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반화된 재택근무를 엔데믹이 되면서도 선호하고 있다. 새로운 직장 문화를 소개하고 긍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사내에도 실시하고, 콘텐츠에도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체리슈머(Born Picky, Cherry-sumers)다.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를 뜻한다. 이는 화두로 떠오른 ESG와 맥을 같이 하므로 프로그램과 보도에서 환경 보호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넷째, 인덱스 관계(Buddies with a Purpose: 'Index Relationships')다. 인간관계를 이제 목적을 기반으로 형성된 인덱스처럼 만들고, 분류하고, 관리한다. 미디어는 나노사회에서 비인간화되는 사회에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뉴디맨드 전략(Irresistible! The 'New Demand Strategy')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다. 시청자가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방송에서 소비자 지향적 관점을 갖고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생산해야 한다.

여섯째, 디깅모멘텀(Thorough Enjoyment: 'Digging Momentum')이다. 컨셉에 열중하거나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거나 특정 물건이나 경험을 수집하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입하는 이들을 팔로우한다면 멋진 콘텐츠가 나올 것이다.

일곱째, 알파세대가 온다(Jumbly Alpha Generation)이다. 알파세대는 Z세대 다음으로 2010년 이후 태어난 13세 이하인 세대로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미래세대인 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이므로 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한다.

여덟째, 선제적 대응기술(Unveiling Proactive Technology)이다.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기술이다. 시청자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제작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한다.

아홉째, 공간력(Magic of Real Spaces)이다. 실제공간은 정교한 가상공간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인력, 연계력, 확장력을 갖고 있다. 〈전국노래자랑〉 같은 공개방송은 이러한 공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한 번 방송으로 끝나지 않고, 공간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도록 확장하여야 한다.

열째, 네버랜드 신드롬(Peter Pan and the Never-land Syndrome)이다.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트렌드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서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의 신선함과 발랄함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이 나왔으면 한다.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정리도 하지만, 1년간 화제가 되었는데 모르고 있던 내용들도 알게 된다. 지면 관계상 트렌드 10개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완독을 권해본다.

지역 시청자위원이 말한다

KBS 청주방송총국

지역문화의 발굴·전수… 지역 방송이 나가야 할 길



축제하기 좋은 계절 10월이 왔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주기 위한 지역축제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축제를 개발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문화콘텐츠는 그 지역의 문화원형을 가공, 재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세우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다. 지역방송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는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KBS 청주방송총국은 2020년 10월 문화의 달 특집으로 라디오 다큐멘터리 2부작 〈홍벽초와 임꺽정〉을 제작·송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충북 괴산 출신인 홍명희가 쓴 대하 역사소설 '임꺽정'의 원문을 최대한 살려 벽초의 문체가 살아있는 창작 판소리 마당 '임꺽정가'를 들을 수 있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홍벽초와 임꺽정〉은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과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이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라디오 다큐멘터리 부분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2022년 9월 7일에는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직지, 시절인연〉을 제작 방영했다. 그동안 직지가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임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만들어졌지만, 직지에 담긴 본래의 가치, 그 내용에 대한 접근과 조명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직지, 시절인연〉은 직지가 가진 본래의 콘텐츠적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직지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본래의 나를 찾는 선의 정수가 담긴 책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고서로써의 가치를 재발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홍벽초와 임꺽정〉과 〈직지, 시절인연〉 이 두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인 '직지'와 홍명희가 쓴 '임꺽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기획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담은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을 구현하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정보화의 진전은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의 중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세계화가 보편적인 흐름이라면 지역화는 여기서 살아남는 생존전략이다.



지역방송이 차별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지역방송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의 존립을 위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실마리는 '지역성 구현'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원형과 특성은 가져가되 시대적 상황과 지역민의 삶에 맞추어 변형되고 창조되는 전통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의 과정에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재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KBS 광주방송총국

스포츠 예능 최초 양궁 버라이어티 **언니랑 쏠래?**





대한민국 여자 양궁은 '여자 양궁 단체전' 종목이 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1988 서울올림픽부터 2020도쿄올림픽까지 9연패라는 대기록을 거두며 세계 양궁계에 금빛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자 양궁 명가 광주가 있다. 1984LA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서향순은 광주에서 태어났고 이후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한 기보배, 최미선, 안산 선수는 모두 광주여자대학 출신이기 때문이다.

〈언니랑 쏠래?〉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광주를 배경으로 한 스포츠 예능 최초 양궁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일반인 여성으로 구성된 양궁단 창단에서부터 집중 훈련과 단체·개인 미션, 평가전과 전국대회 출전에까지 이르는 도전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고공 슈팅, 집중력 훈련, 인터벌 슈팅 훈련(150m 전력 질주 후 슈팅) 등 실제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훈련을 일반인 선수들이 같이 함께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인 양궁선수들은 엘리트 선수에 뒤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함께 선사하고 있다.

제작진은 "양궁이 워낙 접근하기 어려운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있어 올림픽 때만 인기 있는 경향이 있는데, 양궁 훈련 방식들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운동이라는 걸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언니랑 쏠래?〉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최미선·안산을 지도한 김성은 광주여대 양궁단 감독과 '양궁 여제' 기보배가 코치로 참여하고, 일반인 양궁단원 4명과 함께 연예인 창단 멤버로 전 여자체조 국가대표이자 스포테이너인 신수지, 재치 있는 입담의 일본 출신 방송인 모에카가 합류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최미선과 안산 선수도 일일 코치로 특별 출연해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전국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광주·전남권) KBS1

김의철 사장, 국감서 “억측과 오해 해소 위해 감사원 감사 적극 협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7일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직원의 ‘대북 코인’ 보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의철 사장은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질의에 대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절차나 적정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경영진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KBS 직원이 업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북 코인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일 뿐 KBS와는 관련이 없다”며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BS, ‘미디어 다양성 어워즈’ 최우수상 수상



KBS가 10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제1회 미디어 다양성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KBS는 2018년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하고, 성평등 연례보고서 발간, 성평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실천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젊은 미디어 이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사 내 젠더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성평등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한편, 방송 출연진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직과 콘텐츠·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도 주목 받았다.

한국언론학회는 한국 미디어 산업 및 학계에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다양성 어워즈’를 신설했다.

〈간첩과 섬소녀〉, 통일언론상 수상



〈다큐인사이트-간첩과 섬소녀〉가 10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8회 통일언론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다큐인사이트-간첩과 섬소녀〉는 1976년 거문도 간첩 침투사건으로 온 가족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고통을 겪은 김영희 씨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피해자 유영수 씨의 사랑과 인생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부부가 된 김영희 씨와 유영수 씨가 분단으로 겪어야 했던 아픔을 온전하게 전달했다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은 통일언론상은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의 취지와 내용을 신문·방송·통신의 보도·제작에 충실히 반영한 언론사와 언론인,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한 사회단체와 그 관계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한국어연구부, 세종문화상(한국문화 부문) 수상



KBS 한국어연구부가 10월 8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41회 세종문화상 시상식에서 한국문화 부문 상을 수상했다.

한국어연구부는 그동안 언어 순화와 고품격 한국어 확산을 목표로 제작,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존 계승에 기여해온 점 그리고 올해는 한국어 포스터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82년 제정된 세종문화상은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등 5개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국악관현악단, 미니콘서트 〈광장 15+〉로 점심시간에 힐링 선사



KBS 국악관현악단 미니콘서트 〈광장 15+〉가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낮 12시 45분에 열린다. 〈광장 15+〉는 점심시간에 KBS를 찾는 방문객이나 휴식을 취하는 직원들에게 ‘15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을 선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10월 12일 첫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 ‘도라지’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가야금 독주와 파헬벨의 ‘캐논’을 3대의 아쟁으로 재구성한 3중주곡이 연주됐다.

11월 9일 열리는 두 번째 공연에서는 서민의 애환과 통일의 염원이 담긴 ‘상주아리랑’ 대금 독주와 아름다운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영화 ‘The children of Sanchez(산체스의 아이들)’의 주제곡을 전통적인 장단으로 편곡한 태평소 협주곡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노은지 기상캐스터의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날씨와 커피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옛말처럼 한 차례 비가 올 때마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씨인데요. 오늘 같은 날씨엔 어떤 커피가 어울릴까요?

흐린 날, 비 오는 날엔 더 향긋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꽃향기는 비 오기 전 가장 짙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습도가 높은 날엔 냄새가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엔 냄새가 쉽게 퍼져 없어지지만, 습도가 높으면 냄새 분자의 속도가 느려져 냄새가 한곳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비 오는 날에 부침개 부치는 냄새가 유난히 짙게 느껴지고, 빵 굽는 냄새가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은 날엔 냄새 분자가 코점막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커피 향을 더 느낄 수 있는데요. 비 오는 날엔 기압과 습도 덕에 평상시보다 커피의 맛과 향이 두 배 이상 진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커피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건 바로 원두입니다. 커피도 와인처럼 원두 산지에 따라 커피의 맛과 풍미가 다른데요. 그래서 ○○산(産) 커피라고만 해도 어떤 맛일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커피는 주로 열대와 아열대 기후에서 자랍니다. 충분한 태양 빛과 수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커피가 자랄 수 있는 북위 25도와 남위 25도 사이를 '커피 존', '커피벨트'라고 부릅니다.

커피 원두는 신맛이 강한 '아라비카(Arabica)'와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Robusta)'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라비카의 신맛, 로부스타의 쓴맛은 재배지의 '온도'와 '고도' 차이 때문입니다. 아라비카는 해발 1,000~2,000m 고산 지대에서 생산되는데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아 아라비카는 15~25℃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자랍니다. 고지대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커피 열매가 서서히 숙성되기 때문에 밀도는 강해지고 특유의 풍미가 만들어집니다. 아라비카의 대표적 산지로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이 지역의 커피는 신맛을 품고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아라비카와 달리 저지대에서 자랍니다. 평지와 해발 800m 사이에서 자라는데요. 고도가 낮아 기온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라비카가 저온에서 자란다면 로부스타는 24~30℃의 고온다습한 곳에서 자랍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가나 등이 로부스타의 대표적 산지고요. 이 지역의 커피는 쓴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원두 고유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원두의 원산지를 내세우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늦가을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담담한 국물이 전하는 깊은 울림 '옛날손칼국수'



옛날손칼국수는 1999년 첫발을 뗐다. 당시 어머니의 나이 67세, 어머니를 따라 장사에 뛰어든 막내딸은 29세였다. 몇 년 전부터 식당 운영의 전권은 오롯이 딸의 몫이 됐다. 주문을 넣으니 반찬부터 도열했다. 잘게 썬 배추김치와 싱그러운 열무김치, 다진 고추와 양념간장. 2분 후 주인공인 칼제비가 링에 올랐다. 스테인리스 대접을 가득 채운, 가늘고 짧은 칼국수와 몽실몽실한 수제비. 그리고 잡티 하나 없는 해사한 국물. 국물 속을 유영하는 연둣빛 호박과 희끄무레한 감자. 이 허허로운 칼제비가 나는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젓가락으로 대적하다 나중에는 숟가락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무아지경 속에서 퍼 먹었다. 직접 반죽하고 직접 썬 칼국수 면발이 입속을 활보했다.

두 가지 측면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먼저 파고든 것은 밀가루 냄새의 등에 올라타서 훅 들어온 콩가루 냄새. 아니나 다를까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 반죽했단다. 내가 알은 체를 했다. "이게 주로 안동 같은 경북 지방에서 먹는 방식인데요.", "저희 고향에서도 이렇게 해서 먹어요."

어머니의 고향은 충북 음성군. 하긴, 음성군은 동남쪽으로 충남 괴산군과 맞닿아 있고, 그 옆으로 경북 문경시, 예천군, 안동시가 이어진다. 지리적으로 얼마든지 콩가루 칼국수가 교통할 만한 거리다. 재차 검증할 기회도 있었다.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에 위치한 다부네칼국수에서 이 집의 유일한 메뉴인 칼국수를 먹는데 역시 날콩 냄새가 났다. 끊임없이 홀과 주방을 오가던 주인아주머니가 "음성에서는 옛날부터 콩가루 넣어 먹었어. 소화도 잘되고 아주 좋아"라며 확인증을 발급해주었다.

두 번째는 국물의 뉘앙스. 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심심하고 심심해서 극적 전개가 없는 국물. 눈에는 보이지만 움켜쥘 수 없는 안개 같은 국물. 해산물이나 고기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지 않는 담담한 국물. "감자를 삶아 만든 국물이에요. 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별로 들어간 것 없는 이 국물이 내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 당연히 '나는 좋아요'와 '나는 싫어요' 따위로 갈래가 나뉘겠지만 서울에서 좀체 만나기 힘든 향과 맛의 국물임에는 틀림없다. 칼제비를 어느 정도 먹다 배추김치를 고명처럼 얹고, 다진 고추도 훌뿌리고, 양념간장도 끼얹었다. 어젯밤 과음으로 속이 시끄러웠는데, 온몸의 땀구멍이 열리면서 아득했던 정신이 수습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넣지 말기를 권한다. 국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목도해야 한 마디라도 늘려 설명할 수 있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지만, 이 허허실실의 국물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충분하다. 이 결이 고운 국물은 외부의 침입을 받는 순간, 개성이 함몰되고 아물지 않는 상흔이 남게 된다.

식당 홀에는 테이블이 4개 있다. 나보다 늦게 들어와 방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 잡은 중년 남자는 단골인 듯 "양 많이 말고 적당히 주세요"라는 조건을 달았다. 나와 비슷한 시각에 식당 체크인을 마친 멋쟁이 할아버지는 내 바로 앞 테이블에 좌정했다. 회색 모자, 은회색 머리칼, 연회색과 남색이 섞인 목도리, 검회색 카디건.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차림이었다. 그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등으로 늙게 될 것인가를 잠시 상상했다.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9길 7
·메뉴: 손칼국수, 수제비



KBS 2 월화드라마

커튼콜

나무는 서서 죽는다

생애 단 한 번! 필생의 연극이 시작된다!

새 월화 드라마 〈커튼콜〉은 전쟁 통에 가족과 생이별한 뒤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한 여인과 그녀의 생전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가짜 연극을 펼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휴먼 드라마다.

피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졌지만 강한 생활력으로 '낙원 여관'을 국내 굴지 '호텔 낙원'으로 키워낸 재벌 총수 자금순 역은 고두심이 맡았다. 어린 시절 고아였던 자신을 후원해준 이의 권유로 시한부 할머니가 된 자금순의 가짜 손주를 연기하게 되는 무명 연극배우 유재헌 역은 강하늘이, 자금순의 막내 손녀딸이자 낙원 호텔의 총지배인 박세연 역은 하지원이 맡았다. 특히 두 사람은 1950년대 젊은 시절의 자금순과 그녀의 남편 리종문 역할도 맡아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1인 2역의 연기를 선보이게 된다.

다른 출연진 역시 역대급으로 화려하다. 약혼녀였던 세연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벌그룹의 후계자 배동제 역은 권상우가, 낙원 호텔 총지배인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북에 두고 온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자금순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하얀 거짓말' 같은 연극을 꾸미는 정상철 역은 성동일이 맡았다.

드라마 〈달이 뜨는 강〉, 〈바람과 구름과 비〉의 윤상호 감독이 연출을, 영화 〈청년경찰〉, 〈히트맨〉의 조성걸 작가가 집필을 맡은 〈커튼콜〉은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펙터클한 전개와 웅장한 스케일 속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깊어가는 가을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첫 방송 10월 31일 / 매주 월~화요일 밤 9시 50분 KBS 2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김의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2821 / kbssabo@kbs.co.kr
편집인 최영철 **취재** 안현기 기현정 최재영 김희경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